

국민비전클럽 6월 월례 예배

이영훈 목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 없다”



국민비전클럽 6월 예배가 11일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드러졌다. 이날 정계, 재계, 교계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는 제48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를 맞아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도 참석했다.

국민일보 사목 배상한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신원예bene셀중창단의 찬양, 이영훈 담임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시 2: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지켜지고 우리 삶에 뿌리내릴 때 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갈등과 대비가 다 사라지고 화해와 일치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룰 줄 믿는다”며 “이 모

든 것에 우리의 기도가 더 해져야 한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결단력을 기도로 하나님께 얻어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축도 후 문서선교상 시상이었다. 이영훈 목사는 대교구 부문(금천, 강서1·2, 용산, 마포1·2, 구로, 영등포, 동작, 은평, 양천)과 지성전 부문(강서, 남구로, 동작, 양서) 수상 대표들에게 시상했다.

2부로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박성철 회장(국민비전클럽), 김진표 의원(국회의장 후보), 황우여 장로(전 교육부총리)가 인사 말씀을 전했다. 김용만 선교사(우크라이나)는 선교보고 및 간증을 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글·복순희 / 사진·김용두 기자

이영훈 목사, 미8군 군종 방문단 환담

이영훈 담임목사는 14일 성전비서실에서 미8군 군종 방문단을 만나 환담했다. 이날 한미연합사 군종실장 김철우 대령과 미8군 군종실장인 카렌 L. 마커 대령, 군종부실장 손지 중령, 군종부사관 네이슨 만·노아 힐 하사와 유하나 군종사무원이 방문했고 기하성 군 선교위원장 고석환 목사가 동행했다.



이영훈 목사는 “내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여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한국에서 성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미 간의 협력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환담 후에는 직접 조용기 목사 기념홀을 안내했다. 미8군 군종 방문단은 기념홀을 둘러본 후 오산리 기도원을 찾아 조용기 목사 묘역에 헌화하고 함께 기도했다.

김주영 기자

양천대교구, 산불 이재민 돕기 후원금 전달

양천대교구는 12일 성전비서실에서 이영훈 담임목사에게 강원, 경북 산불 이재민 돕기 후원금 3141만 6816원을 전달했다. 양천대교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이번 나눔을 실천했다.



이영훈 목사는 “양천대교구에서 귀한 사랑의 손길로 이재민을 돕는다. 돕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

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복순희 기자

(사)여의도청년장학관 제5기 임시이사회

사단법인 여의도청년장학관 제5기 임시이사회가 17일 성전비서실에서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성진 이사장과 이영훈 이사, 김두영 이사, 김낙철 관장이 참석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종부의 안전을 처리하고 회회했다.

이영훈 목사는 “청년장학관을 다시 연장해 운영해 가는데 있어 하나님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충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부음



6월 14일 소천받은 양학래 원로장로(영등포대교구)의 전국환송예배가 17일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있었다. 향년 78세. 양학래 원로장로는 1996년 장로로 장립되어 친목위원회와 예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봉사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했다.

영광대학 활동재개 감사예배 개최

복지사업국 영광대학 활동재개 감사예배가 12일 제2교육관 6층 영광대학 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영광대학은 주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특활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확산세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주일 특강부터 재개했다.

영광대학장 최재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된 예배에서 복지사업국장 권병수 목사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 13:14~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병수 목사는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욱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대학은 7월부터 점진적으로 한글서예, 미술, 미용, 난타, 국악, 건강체조 등 15개 특별활동도 재개할 계획이다.

금지환 기자

전국여선교연합회 감사예배 및 월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선교연합회 감사예배 및 월례회가 14일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었다. 회장 이명옥 권사의

사회, 김금례 권사의 기도도에 이어 청장년국장 강신호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신호 목사는 ‘기도할 수 있도록’(벤전 4:7~10)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증거다. 일상생활을 경건하게 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전국여선교연합회는 뜨겁게 사랑하

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전국여선교연합회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영훈 담임목사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미나 기자

대교구 소식

금천대교구, 선교사 초청 기도원성령대망회

금천대교구 선교사 초청 기도원성령대망회가 16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실로암성전에서 열렸다. 변원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대교구장 서상현 목사는 독일 딘스라켄과 필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표 선교사를 소개했다. 이날 이영표 선교사는 ‘하나님의 방법’(눅 5:1~6)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표 선교사는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양천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

양천대교구는 16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할렐루야성전에서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실시했다. 이날 예배에는 정대원 총무목사의 사회, 이찬용 장로의 기도, 대교구장 김성호 목사의 강사소개 후 유국승 선교사(말레이시아)가 ‘먼저 구하라’(마 6:33)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국승 선교사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선교 현황을 간증하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과 염려는 다르다. 염려하는 모습은 이방인의 자화상으로, 실패자의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서대문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

서대문대교구는 10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할렐루야성전에서 선교사 초청 기도원성령대망회를

개최했다. 지구장 신봉순 장로의 기도 후 등단한 대교구장 이상영 목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윤창재 선교사를 소개했다. 윤창재 선교사는 ‘폭풍우를 지날 때’(행 27:9~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폭풍우와 같은 상황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

영등포대교구, 사랑의 반찬 나눔 실시

영등포대교구는 16일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80세 이상의 어르신 311세대에 1가구당 1만 2000원 상당의 반찬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영등포대교구는 취약청소년, 미혼모, 쪽방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이어 이번에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반찬 나눔을 실시했다.

아침 6시 30분 대교구장 이승훈 목사와 지구장 임동두 장로, 최남수 장로(3교구협의회회장)를 비롯한 각 교구장과 권사들은 교구 성도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델리찬에서 반찬을 손수 포장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했다. 교구장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에는 직접 찾아가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대교구장 이승훈 목사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돕는 영등포대교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관악대교구, 선교사 초청 기도원 성령대망회

관악대교구는 7일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할렐루야성전에서 개최했다. 김광진A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대교구장 김형진 목사가 이날 설교자로 초청된 배정호 선교사를 소개했다. 캐나다 밴쿠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중인 배 선교사는 ‘성령님이 들

어 주신’(행 17:1~15)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지에서 체험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다.

배정호 선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다”며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석대교구, 선교대회 개최

반석대교구가 3일 선교사 초청 기도원 부흥회를 시작으로 10일과 16일에는 세계선교센터 1층 예배실에서 반석대교구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0일에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조계원 선교사가 ‘창조의 원형’(창 1:9~11)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6일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정중 선교사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시 42:1~5)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018년 12월 필리핀으로 파송된 김정중 선교사는 민다나오에서 신학교 강의와 운영 그리고 6개 도시의 11개 교회 순회 사역을 이끌고 있다. 김 선교사는 성도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사역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마포대교구, 선교사 초청 기도원 예배

마포대교구는 10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실로암성전에서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렸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역 중인 이상용 선교사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시 23:6)을 제목으로 설교하며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간증했다.

이상용 선교사는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고백

했다. 이날 예배는 김정대 목사가 사회를, 8교구협의회의장 김중석 장로가 기도를, 대교구장 이재하 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강서2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

선교사 초청 강서2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14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할렐루야성전에서 진행됐다. 대교구장 이연섭 목사의 사회, 이승한 장로(6교구협의회회장)의 기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용식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박용식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단 7:9~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다시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성령대망회에 참석한 새가족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1·4·9교구 찬양팀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장년대교구, 화요중보기도회 재개

장년대교구 중보부가 진행하는 화요중보기도회가 제2교육관 11층 전도실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 모임이 어려웠던 기도회는 14일 7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바울 선교사(EK)가 말씀을 전했다.

중보부는 이날 기도회 후 장년대교구 사무실 앞에서 성도들이 후원한 미개봉 생활용품은 물론 자녀들의 옷, 장난감 등 물품으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아나바다는 21일에도 열린다.

오정선·이미나·복순희·김주영·금지환 기자